

2010학년도 정시모집

---

**인문계열 논술고사 문항설명 및 채점총평**



2010. 7

**서울대학교 입학관리본부**

# 목 차

I. 시행개요 .....	1
1. 개념 및 성격 .....	1
2. 시행 .....	1
3. 출제방향 및 취지 .....	2
II. 문항설명 및 학생답안 .....	3
[문항 1] .....	3
○ 출제의도와 문항설명 .....	5
○ 총평 .....	5
○ 학생답안 .....	7
[문항 2] .....	9
○ 출제의도와 문항설명 .....	11
○ 총평 .....	11
○ 학생답안 .....	12
[문항 3] .....	14
○ 출제의도와 문항설명 .....	17
○ 총평 .....	17
○ 학생답안 .....	18

## 1. 개념 및 성격

- 우리 대학교의 논술고사는 개별 교과 지식의 단순 암기가 아니라, 교과 영역 간의 전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통합적·창의적 사고력을 측정하며,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다각적이면서도 심층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 문제 상황을 재구성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과정 중심형 시험이다.
- 논술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생의 내면에서 길러지는 통합적 사고력의 신장을 지향한다. 우리 대학교의 논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과별로 분리되어 이루어지는 학습이 아니라, 서로 다른 교과들에서 얻어진 지식을 넘나들며 소통하는 학습을 통해 지식의 영역 전이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 단순한 문제풀이식이나 일방적인 주입식의 수업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과 상호 소통하며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교육으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 2. 시행

- 대상 : 인문계열 모집단위와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1단계 합격자
- 내용

구분	인문계열 모집단위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문항수	3문항		1문항(인문계열 문항 1과 동일)
고사시간	300분(문항 1: 120분 / 문항 2, 3: 180분)		120분
답안 분량	문항1	· 논제 1 : 800 ± 100자 · 논제 2 : 800 ± 100자	· 논제 1 : 800 ± 100자 · 논제 2 : 800 ± 100자
	문항2	· 논제 1 : 600 ± 100자 · 논제 2 : 1000 ± 100자	
	문항3	1600 ± 100자	

### 3. 출제방향 및 취지

- 2010학년도 정시모집 인문계열 논술고사 출제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점은 1) 고등학교 교과서 지문과 주제의 활용, 2) 사교육을 통해 급조되거나 암기된 지식이 아니라 공교육을 통해 길러지는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의 측정, 3)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통한 공교육의 질적인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이었다.
- 이는 지난 수년간 유지되었던 출제 방향과 동일하며, 다만 이번 출제과정에서는 수험생들이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은 분야에서 문제를 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 논술 출제과정에서 교과서의 내용을 최대한 활용한 것은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학생들이 논술을 준비하는 과정이 입시 위주의 단순 반복학습과 지식 암기에서 벗어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독서와 토론을 통한 사고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교육의 한 과정으로 정착되는 데 기여하고자 함이다.
-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서 답변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는 제외하였으며, 기초적인 지식들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텍스트 분석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 이에 따라 (1)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아우르는 학문통합적인 문제, (2) 경제 이론을 이해하고 그 기초 위에서 현상을 분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문제, (3) 제시문을 정확하게 읽어야 답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 문항 1

## [ 제시문 ]

(가)

칸트에 따르면 예술미는 지성과 상상력이 조화를 이룰 때, 특히 상상력이 자유롭게 유희할 때 성립한다. 자유로운 상상력에 기반한 창조성은 최고도의 생산적 정신 능력이다. 예술은 단순한 여흥이나 장식이 아니고 보편가치로서의 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예술가에게 창조성은 필수 조건이다. 비단 예술가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맡는 인물들에게도 이 조건이 요구된다.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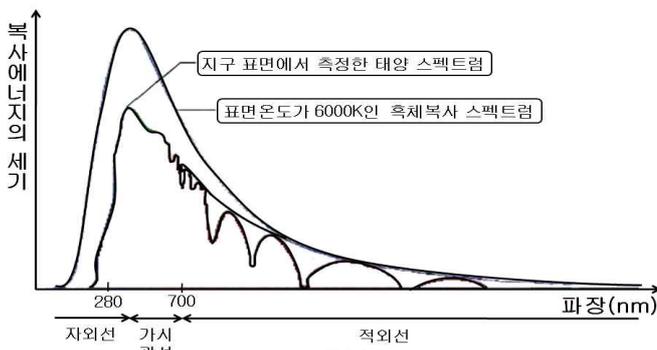
세균학자 플레밍(A. Fleming, 1881~1955)은 제 1차 세계대전에서 부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세균 감염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보고, 세균 성장을 억제하는 물질을 찾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었다. 1928년에 그는 상처의 고름에서 포도상 구균을 분리하여 배양하던 중 우연히 곰팡이에 의해 오염된 배양 접시를 보게 되었다. 그런데 곰팡이가 자란 주변에는 포도상 구균이 없는 맑은 띠가 형성되어 있었고, 곰팡이로부터 멀어질수록 포도상 구균의 균체를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이를 매우 흥미롭게 생각한 플레밍은 그 곰팡이를 채취하여 배양하였다. 그리고 배양 접시에서 곰팡이를 제거한 다음, 배양액을 800배까지 희석하여도 이 배양액이 포도상 구균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 발견은 곰팡이 자체가 아니라 곰팡이가 생산한 어떤 물질이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플레밍은 이 곰팡이가 속한 페니실룸속(屬)의 명칭에 맞추어 이 물질을 페니실린으로 명명하였다. 이후 그는 연구를 계속하여 페니실룸속에 속하는 여러 종류의 곰팡이 가운데 페니실룸 노타툼만이 페니실린을 생산하며, 페니실린이 여러 종류의 세균에 대하여 항균 작용을 하고 생쥐와 토끼 실험에서도 같은 항균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밝혀냈다.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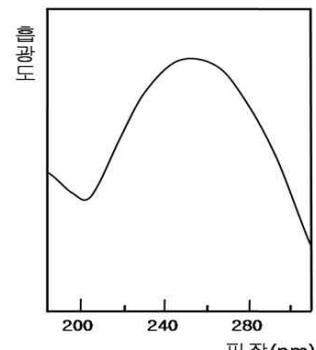
(다)

지구의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은 햇빛의 자외선을 흡수하여 지상에 있는 동·식물의 보호막으로 작용한다. 지상으로부터 약 15km~40km 떨어진 대기권에 오존이 밀집된 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어떻게 발견되었을까. 지구상의 모든 생명 활동을 지속시키고 기후를 결정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태양으로부터 공급된다. 태양광선에는 가시광선 이외에도 자외선 등의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와 적외선 등의 파장이 긴 전자기파가 있다. 그런데 표면은

도가 약 6000K인 흑체복사\*에서 예측한 스펙트럼과 지구 표면에서 측정한 태양광선의 스펙트럼을 비교해 보니 <그림 1>과 같았다. 두 스펙트럼의 전반적인 모양은 비슷하나 300nm\*보다 짧은 파장을 가진 자외선은 지상의 스펙트럼에서는 관측되지 않았다. 19세기의 과학자들은 왜 그렇게 관측되지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그런데 1840년에 오존이 발견된 이후 여러 연구자들이 이 기체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밝혀냈다. 이들 가운데 아일랜드의 화학자 하틀리(W. N. Hartley, 1845~1913)는 <그림 2>와 같이 오존이 파장 240nm에서 300nm 사이의 자외선을 강하게 흡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지상에서 관측되는 태양빛에 300nm보다 짧은 파장의 자외선이 관측되지 않는 점에 주목하여, 없어진 영역의 자외선이 대기 상공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오존층에 흡수되어 지상에 도달되지 않는다고 예측하였다.



<그림 1>



<그림 2>

하틀리는 오존층이 존재한다는 가설을 1881년에 제안하였으며, 이 가설은 20세기 중반 과학자들이 로켓을 이용하여 실측치를 구하게 되면서 확인되었다. 우리 시대에 오존층의 파괴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명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흑체란 외부에서 주어진 빛을 완전히 흡수했다가 재방출하는 물체를 뜻하며, 흑체가 방출하는 복사를 흑체복사라고 한다. 태양은 흑체에 가까우므로 흑체복사 스펙트럼을 태양이 방출하는 복사스펙트럼으로 간주할 수 있다. 1nm는  $10^{-9}$ m이다.

## [ 문제 1 ]

플레밍과 하틀리의 과학적 발견 과정에 들어 있는 창의적인 생각을 찾아내어 근거와 함께 설명하고, 그들의 발견이 과학의 발전과 인류의 삶에 기여한 바를 기술하시오. (800 ± 100자)

## [ 문제 2 ]

제시문 (가)와 [ 문제 1 ] 을 활용하여 ‘창의적 사고’의 개념을 정의하고, 자연 과학 이외의 영역에서 그러한 창의적 사고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 논하시오. (800 ± 100자)

## ○ 출제의도와 문항설명

### □ 출제의도

- 지식기반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고 있는 창의적 사고의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해,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 사례와 하틀리의 오존층 존재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창의적인 사고의 실례를 찾아보고, 개념화하도록 하였다.
- 통합적 사고를 유도하기 위해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의 호환성, 그리고 지식과 상상의 통합에서 기인하는 창의적 사고의 개념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

### □ 문항설명

- 제시문 (가)는 예술 분야의 창조성에 관한 칸트의 생각을 매우 간략하게 보여주고, 학생들이 창의성을 개념화하는데 참고하도록 하였다.
- 제시문 (나)는 10학년 과학 교과서에 제시된 지문으로서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을 기술하고 있다. 제시문 (다)에서는 성층권을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았던 하틀리가 오존층의 존재를 가정하게 된 까닭을 설명하고 있다. 오존층에 대한 설명 역시 10학년 과학 교과서에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다. 학생들이 과학 지식의 산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추론을 통해 탐구과정에서 나타난 창의적 사고를 찾도록 하였다.
- [문제 1]은 과학 탐구 과정에 나타난 창의적 생각을 인문학적 상상력과 추론을 통해 찾도록 하고 있다.
- [문제 2]는 창의성을 개념화하고, 이를 확장해서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 총평

- 학생 대부분은 플레밍과 하틀리의 사례에서 제시된 창의적 사고의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많은 답안들이 제시문 1, 2, 3을 단순 인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 창조성을 인문학적 상상력과 추론을 통해 개념화하고 이를 확장해서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 2’에서는 학생들마다 다양한 예시를 들었다. 그러나 적절하지 않은 예시들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친 답안이 많았으며, 적절한 사례를 제시한 경우에도 앞에서 제시한 ‘창의적 사고’와의 논리적 연관성이 부족하여 논제의 핵심에서 벗어난 답안이 대부분이었다. 많은 사례를 언급하는데 급급하여 하나의 사례에 대해서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 답안도 있었다. 논제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창의적 사고’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

여 논리적으로 설명한 답안은 매우 드물었다. ‘논제 2’에서 중요한 것은 개념 정의와 사례의 일관성이다. 그러나 이를 충족한 답변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학은 학생들이 논술을 준비하면서 사고력을 키우기를 원한다. 그런데 학생들은 각 분야별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과 주요 내용을 암기하는 등의 기계적인 학습과 사교육에 의존하는 단기간의 맞춤형 학습을 하고 있다. 이 괴리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깊이 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 예시 답안이 모범 답안은 아니다.

## ○ 학생답안

### (1) 논제 1

플레밍의 창의성은 그가 우연히 발견한 사실을 흥미롭게 생각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배양 접시가 곰팡이에게 오염된 것은 엄밀히 말하면 실험상의 실수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오염된 접시는 폐기처분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플레밍은 이러한 실수에서 나타난 현상도 흥미롭게 생각하였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곰팡이가 그의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상상력을 토대로 그는 곰팡이가 왜 항균 작용을 하는지 연구하여 페니실린을 발견해냈다. 특히 연구의 동기는 상상력이었지만 그 연구의 과정이 굉장히 구체적인 점은 플레밍의 창의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의 발견은 이후 과학에서 항균 물질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곰팡이까지 그 연구의 폭을 넓힌 의의가 있다. 페니실린은 발견된 이후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여 세균에 의한 사망자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하틀리의 연구는 그가 오존의 특성을 다른 문제를 설명해내는 데에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창의적이다. 오존의 발견 당시 많은 과학자들이 오존의 특성을 연구했지만 그들의 연구는 오존 그 자체에만 한정되었다. 하지만 하틀리는 오존이 특정 범위의 파장을 갖는 자외선을 강하게 흡수한다는 사실이 지상에서 관측되는 태양광의 스펙트럼에 관한 의문점을 설명해낼 수 있을 거라 상상하였다. 이런 그의 상상은 특정 정보를 적합한 문제와 연결시켰다는 점과 상상의 기반이 구체적인 수치에 있다는 점에서 창의적이다. 그의 가설로 인한 오존층의 발견은 과학사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명쾌히 설명해냈다는 의의가 있다. 또 오존층의 연구는 인류 뿐 아니라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오존층 파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가는 기반의 역할을 하고 있다.

### (2) 논제 2

(가)에 따르면 창조성은 지성과 상상력이 조화를 이룰 때 발휘된다. 이 때 상상력은 일반적인 사고의 틀 바깥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말한다. 플레밍이 우연히 생긴 곰팡이에 주목한 경우나 하틀리가 오존의 특성을 태양광 스펙트럼을 설명하는 데에 활용한 경우 모두 상상력이 드러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상상력 그 자체만을 놓고 창의적 사고라고 할 수는 없다. 상상력은 때로 다분히 주관적이며 현학적이기 때문이다. 상상은 그 기반이 구체적 현실에 있을 때 창의성으로 나아간다. 이 때 상상력에 구체성을 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성이다. 플레밍이 곰팡이에 대해 다각도로 구체적으로 연구한 것과 하틀리의 가설이 그 당시까지의 과학적 발견에 토대를 두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의 상상력이 지성의 도움으로 구체성을 띠는 과정을 보여준다. 상상이 지성에 의해 구체성을 갖게 되면 그 상상은 객관성과 보편성을 갖추게 된다. 이 때 비로소 그 상상은 창의적이라 말할 수 있다.

창의적 사고는 자연 과학 이외의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되어 왔다. 일례로 피카소의 그림도 창의적 사고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에는 평면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기존 관념을 넘어 획기적인 표현기법으로 그림에 입체를 표현해냈기 때문이다. 이 때 그림에 입체

를 표현한다는 것이 그의 상상력이고 그것을 가능케한 표현기법이 그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예를 통해 창의적 사고는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피카소의 창의적 사고가 기존 관념의 틀을 깬기 때문이다. 즉 창의적 사고는 보편성을 갖기에 사회의 사고의 틀을 바꾸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피카소가 우리에게 새로운 미의 세계를 열어주었고 플레밍과 하틀리가 인류사에 지대한 공헌을 했듯이 말이다.

## 📌 **채점평**

이 답안은 기발한 발상을 토대로 논지를 전개하거나, 평소의 풍부한 독서량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전개한 답안은 아니다. 그러나 주어진 지문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논리를 차분히 전개해나가고 있다. 특히 ‘논제 1’에 대한 답안에서 이 점이 잘 드러나 있으며, 자신의 생각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있다. 제시문 (나)와 (다)의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의 핵심을 비교적 정확한 문장으로 기술하고 있다. ‘논제 2’의 답안에서 주목되는 점은 지성과 상상력의 관계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펼쳐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창의적 상상력이 실현되는 첫 조건을 현실 기반성에서, 그리고 마지막 단계를 객관성과 보편성에서 찾은 것은 인상적이다. 사례로 제시한 피카소의 새로운 회화에 대한 구상은 설명이 피상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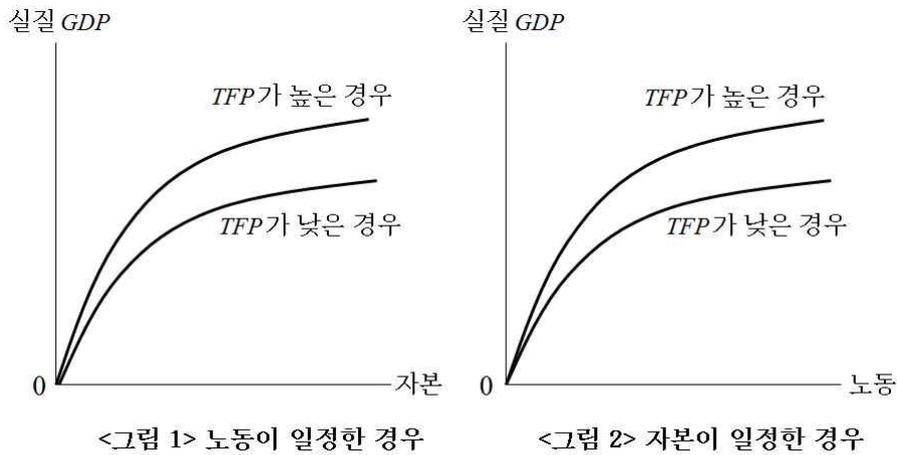
이 글에서는 문장 서술에 있어 어색하거나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면 ‘논제 1’에서 “또 오존층의 연구는 인류 뿐 아니라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오존층 파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나가는 **기반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문장은 비문이며, 불필요한 요소의 삽입으로 가독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플레밍의 우연한 발견 이후 행해진 여러 단계의 실험과정을 단지 “구체적”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 역시 아쉬운 부분이다. 묘사하고자 하는 행위와 상태를 표현해내는 적절한 어휘의 구사 능력이 요청된다. 또 “**곰팡이에게** 오염된 것”, “**설명해낼 수 있을 거라** 상상하였다.” 등의 문장은 엄밀성을 강조하는 논술에는 어울리지 않는 구어체적 표현이다. 또 “.....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추론적 표현을 남발하지 말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쓰는 것이 좋다. 이 답안에서 지적된 이러한 요소들은 대부분의 다른 답안들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논술문 작성에 있어 논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논지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정확하고 엄밀한 문장과 어휘의 사용은 훌륭한 논술문을 작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 문항 2

### [ 제시문 ]

(가)

한 국가의 실질GDP는 자본, 노동, 총투입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에 의해 결정되며, 그 관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고 가정하자.



여기에서 총투입생산성은 좁게 보면 각 국가의 기술수준에 의해, 넓게 보면 기술수준뿐만 아니라 실질GDP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제도, 정책, 규제, 사회간접자본 등)에 의해 결정된다.

아래 표는 1960년대 중반부터 1990년경까지 동아시아 몇 국가와 미국의 실질GDP의 연평균 성장률과 자본, 노동, 총투입생산성이 이러한 실질GDP의 연평균 성장률에 상대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보여 주고 있다. 1960년대 중반 동아시아 국가들의 실질GDP와 총투입생산성은 미국의 실질GDP와 총투입생산성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표 1> 실질GDP의 연평균 성장률과 자본, 노동, 총투입생산성의 상대적 성장 기여도

	실질GDP의 연평균 성장률	상대적 성장 기여도		
		자본	노동	총투입생산성
한국(1966-1990)	10.27%	39.6%	43.8%	16.6%
싱가포르(1966-1990)	8.75%	64.6%	33.1%	2.3%
홍콩(1966-1991)	7.29%	40.9%	27.6%	31.5%
대만(1966-1990)	9.40%	33.6%	38.7%	27.7%
미국(1966-1990)	3.03%	37.9%	42.3%	19.8%

(나)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強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 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 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에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仁義)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홍익인간(弘益人間)이라는 우리 국조(國祖) 단군(檀君)의 이상이 이것이라고 믿는다. 또 우리 민족의 재주와 정신과 과거의 단련이 이 사명을 달성하기에 넉넉하고 우리 국토의 위치와 기타 지리적 조건이 그러하며, 또 1차, 2차의 세계대전을 치른 인류의 요구가 그러하며, 이러한 시대에 새로 나라를 고쳐 세우는 우리가 서 있는 시기가 그러하다고 믿는다. 우리 민족이 주연 배우로 세계무대에 등장할 날이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는가.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

[ 문제 1 ]

제시문 (가)의 그림을 이용하여 표에 있는 국가들의 경제성장 특성을 설명하고, 이 특성이 향후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장기적으로도 지속적 경제성장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단, 모든 국가들에서 실질GDP와 자본, 노동, 총투입생산성 간의 관계는 동일하다고 가정할 것.

(600 ± 100자)

[ 문제 2 ]

두 제시문을 기초로 하여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세계무대의 주연 배우로 등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되, 다음 사항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시오. (1,000 ± 100자)

- ① 현재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強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기에 족한가?
- ② 제시문 (나)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아닌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소원하는 글쓴이의 생각이 현재 시점에서 타당한가?

## ○ 출제의도와 문항설명

### □ 출제의도

- 경제력뿐만 아니라 문화적 요인까지 포괄하여 우리나라의 구체적 발전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종합적인 이해분석력, 판단력, 논리력, 창의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 □ 문항설명

- 제시문 (가)는 한 국가의 실질GDP와 자본, 노동, 총투입생산성 간의 이론적 관계를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1960년대 중반부터 1990년경까지 동아시아 국가와 미국에 나타난 실질GDP의 연평균 성장률, 그리고 자본, 노동, 총투입생산성이 이러한 실질GDP의 연평균 성장률에 상대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표로 보여주고 있다.
-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김구의 『나의 소원』에서 발췌한 글로서, “우리 민족이 세계무대의 주연 배우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력뿐만 아니라 인의(仁義), 자비, 사랑을 배양하는 문화의 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논제 1’은 제시된 표에 있는 각 나라들의 경제 성장 특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경제성장이 장기적으로도 지속 가능한지를 논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논제 2’는 제시문 (나)에서 추출한 명제에 대하여 학생이 판단해 보고, 우리나라의 미래상에 대해 숙고하도록 하였다.

## ○ 총평

- ‘논제 1’은 제시된 그림을 이용하여 표에 나타난 5개 국가들의 특성을 설명하는 문제이나, 많은 학생들이 실질GDP의 연평균 성장률과 자본, 노동, TFP의 상대적 성장기여도를 표에 제시된 비율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단순히 표에 제시된 내용을 되풀이하는 것보다 표의 의미를 바탕으로 논점을 찾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 ‘논제 2’의 경우는 두 제시문을 기초로 우리나라의 발전방안을 기술하는 문제였으나, 대부분의 답안은 제시문 (나)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TFP와의 관련성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나치게 시사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단순히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의 미래상에 대해 숙고하도록 요구한 문제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 ○ 학생답안

### (1) 논제 1

1960년대 중반부터 1990년경까지의 동아시아 국가들의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은 뒤쳐진 조건에서 급격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가)의 각 그래프에서 왼쪽의 가파른 곡선 상에 위치해 있었음을 뜻한다. 미국은 반면 이미 경제가 상당히 성장해 있었으므로 실질GDP 성장률이 낮다.

표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한국과 싱가포르, 홍콩과 대만의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홍콩과 대만은 높은 총투입생산성의 비중이 경제성장에 기여해 왔다. 이는 제반 요인이 잘 갖춰져 있을 뿐 아니라 기술수준도 높다는 것을 알려준다. TFP가 높을수록 그 국가는 TFP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 유리해지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해진다. (가)의 그래프에서 곡선 자체가 위로 이동하는 것이다.

반면 한국과 싱가포르에서는 TFP의 성장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특히 싱가포르는 절망적 수준이다. TFP 수준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그래프에서 보듯이 자본과 노동을 더 투입해도 실질GDP의 한계 증가율은 점점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지속적 경제성장이 힘들어진다.

미국 역시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다. 미국의 실질GDP 성장률이 낮은 것은 자본과 노동의 투입이 그래프의 오른쪽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음을 의미하며, 이런 조건에서 TFP가 더 향상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지속적 경제발전은 어렵다.

### (2) 논제 2

한국은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경제는 세계 10위권을 넘나들고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의 대외적 업적도 이루었다. 그러나 동시에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모순도 생겨났다.

첫 번째는 낮은 TFP로 인한 성장 동력의 약화이다. 현재 GDP의 큰 부분을 자본집약적 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품인 첨단산업 제품의 핵심 부품을 수입해서 쓰는 등 원천기술 보유의 문제도 심각하다. 게다가 대부분의 GDP가 대기업에 의존하는 산업의 이중구조화 역시 큰 문제이며, 이와 관련된 빈부격차는 고질적이다. 따라서 첨단 기술을 확보해서 TFP를 높이고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 국민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고용된 현실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그들의 이익을 보호해주면, TFP도 높일 수 있고 많은 국민들의 '부력'이 풍족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국제관계와 군사력이다. 현재 한반도의 주위에는 미국, 중국, 일본 등이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 중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고 있으며, 이는 일정 부분 무역에 의한 원인이 크다. 따라서 무역 상대국을 다원화하여 한 국가에 지나치게 편중된 상황을 해소하여 우리나라가 주체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북한과의 긴장 관계를 완화하고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한반도 주위의 강대국들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부족한 군사력을 조금씩 보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김구 선생이 말했듯이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세계는 이미 탈산업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적

역량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부족한 부력과 강력을 정비하면서, 앞으로 세계에 내놓을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에 힘을 쏟아야 한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앞으로의 세계에서 소비의 대상은 문화가 될 것이므로,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위한 노력은 지금 바로 시작되어야 한다.

## 📌 **채점평**

이 답은 표에 제시된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국가들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범주화하였다. 즉 동아시아 국가들 중 한국과 싱가포르, 홍콩과 대만의 경제성장 차이를 정확히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특성을 제시된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하고자 했던 점이 돋보인다. 표와 그림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출제 의도 중 하나였으며, 제시문 (가)의 그림을 이용하도록 논제에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지만, 이 답안은 다른 답안과는 구별된다. 특히 제시문의 마지막에 삽입되었던 “1960년대 중반 동아시아 국가들의 실질 GDP와 총투입생산성은 미국의 실질 GDP와 총투입생산성보다 낮은 수준”이었다는 단서 조항을 놓치지 않고, 동아시아 국가들이 (가)의 각 그래프에서 왼쪽의 가파른 곡선 상에 위치해 있었던 반면 미국은 실질 GDP가 이미 높은 수준이었으므로 동아시아 국가와 비교하여 실질 성장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음을 그래프 상에서 정확하게 짚어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한 국가의 실질GDP와 자본, 노동, 총투입생산성 간의 관계가 일정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실질GDP의 증가가 자본 또는 노동투입 증가에 의존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은 국가경제가 <그림 1>과 <그림 2>의 곡선 상에서 이동했던 것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였다. 이에 비하여, 실질 GDP의 증가가 TFP의 증가에 의존했다는 것은 곡선 자체가 위쪽으로 이동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미국 경제의 성장에 대해서는 다소 근거가 불분명하나, 전반적으로 다른 학생들의 답안에 비해 표의 이해, 그래프와의 관계 설정, 그래프의 해석 등에서 출제 의도를 충족하고 있다.

두 번째 논제의 경우, 이 답안은 도입 부분에 현재 우리의 부력(富力)과 강력(強力)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논지를 펼친 탓에 강한 흡입력을 갖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다. ‘논제 1’과의 관련을 고려하여 부력의 증가 방안을 정리하였고, 이후 강력의 증가 방안에 대해서도 경제적인 부분에 집중하여 논하였으나 이 점 역시 ‘논제 1’과의 관련성을 염두에 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문화로 대변되는 soft power를 키우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제시문 (나)의 저자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는 데 있어 비교적 다양한 입장에서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 제시문 ]

(가)

조선 후기의 학문과 사상에서 나타난 새로운 경향 중에 대표적인 것은 실학의 발달이었다. 실학은 17, 18세기 사회·경제적 변동에 따른 사회 모순의 해결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대두한 학문과 사회 개혁론이다. 실학은 18세기에 가장 활발하였으며, 대부분의 실학자는 민생 안정과 부국강병을 목표로 하여 비판적이면서 실증적인 논리로 사회 개혁론을 제시하였다.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나)

무릇 노비가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게 하는 법을 한결같이 균등하게 적용해야 한다. 지금의 법에는 공사(公私)의 노비는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노(奴)가 양녀(良女)에게 장가들어 낳은 아이는 아버지의 신분을 따르게 하니, 이 법은 한결같지 않고 오직 친한 신분을 따르게 하는 것이다. 마땅히 한 쪽을 따르도록 그 법을 분명히 정하여, 노(奴)가 양녀(良女)에게 장가들어 낳은 아이는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살펴보건대, 우리나라 풍속에 공사노비(公私奴婢)가 어머니를 따르게 하는 법은 고려 정종(靖宗) 때 시작되었다. 어머니만 알고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것은 금수(禽獸)의 도리(道理)이다. 인류인데도 금수처럼 처신(處身)하게 하니 어찌 법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법이 아닌 유래를 구명해보면, 우리나라 풍속에서 노비를 부릴 때 학대하고 관용을 베풀지 않으며 마치 우마(牛馬)나 계견(鷄犬)처럼 다루는데, 부리기를 이같이 하고 아버지를 따르라고 하면 간사하고 문란한 소송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머니를 따르게 하는 법이 그런 것이 아니라 노비를 세전(世傳)시키는 법이 그런 것이다. 후세에 이르러서는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는 법을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어머니가 양녀(良女)이면 자식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신분을 따르게 하여 노비로 삼는다. 이런 법은 법이 아니고 다만 사람을 몰아서 노비가 되게 하는 것이니 불법 중에 불법인 것이다. [중략] 살펴보건대, 노비라는 명칭은 본디 죄지은 사람을 다스리는 데서 생겨난 것이며, 죄인이 아닌데도 노비로 만드는 법은 옛적에는 없었다. 무릇 죄인으로 노비가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벌은 후손에게까지 미치지 않았는데, 하물며 죄가 없는 사람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중략] 조선의 노비법은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고 오직 그 가계만을 살펴서 영원히 노비로 삼는다. [중략] 조선시대에 들어와 법을 제정할 때 사람을 몰아 노비가 되게 하고 노비 신분에서 빠져 나오는 사람은 없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노비가 점점 많아져 10명에 8, 9명을 차지하고, 양인(良人)은 점점 적어져 10명에 1, 2명을 차지하게 되었다. [중략] 나라에 공민(公民)이 없어지고 모두 사유(私有)로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비 한 사람의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도 10년을 다투고도 판결이 나지 않는다. [중략] 도망간 노비 한 사람을 잡아오기 위해 그 구족(九族)을 침해하고 소요를 일으키기도 한다. [중략] 이러한 폐단과 형세가 극단에 이르러 변통(變通)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당장 변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게 하는 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한결같이 고루 적용하는 것이다. 양녀(良女) 소생이면 양인이 되게 함을 이름이다. [중략] 왕도(王道)가 행해져서 여러 가지 제도가 바로 서고 편루(偏陋)한 풍속이 제거되면 노비법이 반드시 혁파될 것은 명백하다. [중략] 우리나라에서는 노비법이 오래되고 그것이 풍속을 이루어 사대부들이 모두 노비에 의지하여 집을 유지하는 까닭에 갑자기 개혁하기 어렵다. 반드시 풍속이 점점 변하고 상하 모두 살림이 넉넉해지고 고공(雇工: 머슴)이 점차 늘어난 후에야 노비제를 폐지할 수 있을 것이다. 노비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갑자기 현재의 노비를 모두 폐지한다는 것이 아니다. 노비 신분을 당대에 그치게 하고 대대로 노비가 되게 하는 법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유형원 『반계수록(磻溪隨錄)』, 1670년)

#### (다)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군신(君臣)과 상하(上下)는 예가 아니면 그 질서가 정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옛날에는 성인(聖人)이 개물성무(開物成務: 만물의 뜻을 밝혀서 인간의 질서를 마련함)의 문채(文彩)를 만들어 귀천(貴賤)을 표시하였으니, 소위 황제(黃帝)·요(堯)·순(舜)이 의상(衣裳)을 드리우자 천하가 다스려졌다고 하는 것이 이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공복(公服)의 문채에 등급이 있고 깃발의 술에도 등급이 있으며 수레에도 등급이 있으며 지붕의 골에도 등급이 있으며 제사에도 등급이 있어서 그 질서가 정연하여 상하의 등급이 명백하였으니, 이것이 성인이 세상을 통솔하고 백성을 안정시킨 대권(大權)이다. 우리나라 습속에도 변동이 자못 엄하여 상하가 오로지 각각 그 분수를 지켰다. 근세 이후로 작록(爵祿)이 한쪽으로 치우쳐 귀족이 쇠잔하자, 호리호맹(豪吏豪賍: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아전과 백성)이 틈을 타서 기세를 부려서 이들의 집과 말 치장의 호사스러움과 의복과 음식의 사치스러움이 모두 법도를 넘어, 아래가 위를 능멸하고 위는 시들게 되어 다시 등급이 없어졌다. 장차 어찌 사회를 유지 결합하여 그 원기를 북돋아 그 혈맥을 통하게 하겠는가. 귀천을 밝히고 지위의 서열을 구별하는 것은 오늘날의 급무(急務)이다. [중략] 옹정(雍正) 신해년(영조 7년, 1731년) 이후로 무릇 사노(私奴)의 양인(良人) 신분 처(妻) 소생은 모두 양인 신분을 따르게 되었다. 그 이후로 상층은 약해지고 하층은 강해져서, 기강이 무너지고 백성들의 뜻이 흩어져서 통솔하고 이끌 수 없게 되었다. [중략] 신해년 이후 귀족은 날로 시들어 가고 천민은 날로 횡포해져서 상하의 질서가 문란하여 교령(敎令)이 행해지지 않으니, 한번 변란이 일어나면 흩더미가 무너지고 기왓장이 부스러지는 형세를 능히 막지 못할 것이다. 군왕은 이미 멀리 떨어져 있고 수령은 나그네와 같아서, 마을 이웃 간에 어리석은 무리를 통솔하고 이끌 방도가 없으면 어찌 어지럽지 않겠으며 또 무엇으로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내가 노비법을 복구하지 않으면 어지러움으로 망하는 것을 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정약용 『목민심서(牧民心書)』, 1818년)

## [ 논제 ]

자신이 19세기 초반의 실학자라고 가상하고, 노비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논설문으로 작성하  
되, 다음 사항을 포함하시오. (1,600 ± 100자)

- ① 노비제에 대한 (나)와 (다) 주장의 비교·설명
- ② 두 주장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

\* 단락 구분은 한 칸 들여쓰기로 하고, 논설문 전체의 제목이나 소제목은 쓰지 마시오.

## ○ 출제의도와 문항설명

### □ 출제의도

-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제시된 실학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노비제에 대한 당대 실학자들의 주장을 자세하게 소개함으로써, 교과서가 기술하고 있는 당대 사회와 실학사상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 사회적 이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결정하고 주장을 세우기 위한 근거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찰한 후, 이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 □ 문항설명

-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실린 실학에 대한 지문이다. 제시문 (나)와 (다)는 유형원의 『반계수록』과 정약용의 『목민심서』 중 노비제와 관련된 주장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제시문의 출전과 집필 시기를 제시문에 포함하여 노비제에 대한 실학자들의 관점의 차이를 시대적 차이를 고려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
- 논제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시대적 배경 및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실학자들의 개혁안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의 학문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도록 하고 있다.

## ○ 총평

- 논제에서는 교과서가 설명하고 있는 실학의 관점에서 논지를 전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논술에서는 제시문과 논제를 잘 이해하고 글을 쓰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이 문항에서는 각 제시문이 보여주는 시대적 배경의 차이를 이해하면서 논지를 폈는지가 평가의 핵심이다.
- 대부분의 답안들은 노비제가 전성기이던 유형원 시기와 노비제가 해체기에 접어든 정약용 시기의 시대적 배경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각 제시문의 내용을 단순히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유형원의 주장을 노비제 해체로 단순하게 요약한 답안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답안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었다.
- 논제에서 19세기의 실학자임을 가상하여 논설문 작성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시점에서 무조건적인 노비제 폐지를 주장하는 등 논제의 요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무시한 답안도 매우 많았다. 학생들이 논제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

## ○ 학생답안

현재 양천제를 기본으로 하는 조선의 신분제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왜란과 호란을 거치며 노비문서가 불타 노비제가 문란해졌으며, 최근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한 노비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비제의 존폐에 대해 크게 두 가지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종모법을 철저히 시행해 점진적으로 노비제를 폐지하자는 유형원의 주장이 하나이고, 일천즉천의 기존 노비법을 복구해 사회 기강을 바로잡자는 정약용의 주장이 다른 하나이다.

먼저 유형원의 주장은 노비제가 가져오는 폐단을 지적한다. 노비제는 아무 죄 없는 인간을 가계에 따라 개인의 소유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매우 비인도적인 제도이다. 또한 노비제로 인해 노비 수가 급증함에 따라 양인의 수가 줄어든다. 노비는 세를 내지 않으므로 이는 국가의 재정적 손실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노비제로 인한 사회의 폐단이 심각하다는 것도 문제이다. 노비로 인한 소모적 소송이나 분쟁이 많은 것이다.

반면 정약용은 유형원의 주장대로 시행된 노비종모법으로 인한 폐단을 지적한다. 노비종모법의 시행은 본래 노비였어야 할 자를 양인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사회의 수직적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 또한 최근에 이르러 부를 쌓은 하층민들이 많아 사회의 질서가 어지러운데, 종모법의 시행은 이 문제점을 증폭시킨다. 마지막으로 종모법의 시행으로 하층의 힘이 강해지면, 지배층의 통솔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도 문제이다.

그러나 정약용의 주장은 한계를 갖고 있다. 먼저, 정약용은 사회 질서 문란이라는 문제의 원인을 잘못 파악했다. 그가 하극상이라 파악하는 사회 하층계급의 성장은, 노비제로 인해 증폭된 것이 아니라 현재 사회의 흐름인 것이다. 하층계급의 성장은 노비제 때문이 아니라, 최근 상공업과 농업 기술의 발달로 하층민 중 부를 축적한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의 대응책으로써의 노비제 복구는 타당하지 않다.

또한 정약용은, 종모법 시행과 그에 따른 노비제 폐지가 가져오는 문제가 사회 변동기에 나타나는 단기적 현상이라는 사실을 간과했다. 물론 종모법 시행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양인이 늘어 오히려 이득이 되는 점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것도 유형원의 주장일 것이다. 점진적인 노비제의 폐지 쪽으로 가는 것이다. 그의 주장을 따르면, 먼저 비인도적인 노비제를 거부해 정의로운 통치를 이룰 수 있으며, 양인 수 증가로 인해 세수도 확충할 수 있다. 또한 양인이 된 노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이들을 일반 백성과 같이 통치한다면 폭동이나 소요사태도 사라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비제의 폐지는 사회의 경직됨을 해소하는 기능도 할 수 있는데, 유연한 신분이동을 통해 경직되지 않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지난날 정조께서 서얼 출신 인재를 등용한 것도 경직됨을 막고 인재를 고루 등용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 경우 노비제의 복구는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주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통치는 질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질서가 구축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노비제는 질서를 강요하는, 패도정치에 가깝다. 실용적 측면 외에 이러한 맥락에서도 노비제는 폐지되는 것이 옳으며, 조선 지배층은 노비제 폐지 후의 변란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노비제와 상관없이 변란이 일어날 일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골몰하는 게 옳을 것이다.

## ㉮ 채점평

이 답안은 서론 부분에서 논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다른 답안들이 틀에 박힌 문장으로 시작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답안의 도입이 그나마 인상적이다. 문장의 서술과 표현 방식에 있어서도 주어진 제시문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그 내용을 소화하여 자신의 문장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구조의 측면에서도 양비론이나 절충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대신, 유형원의 입장을 따르면서 정약용의 논리를 극복하는 논변이 설득력 있으며, 논제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당대의 실학자를 가상하라는 점에도 충실하였다.

다만 유형원의 주장을 단순히 노비제 폐지로 바라보고 전체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과 유형원과 정약용의 역사적 시차와 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로 인해 서두에서 19세기 실학자를 가상하라는 논제의 요구를 잘 따르는 것처럼 보였던 이 답안은 논리가 전개됨에 따라 유형원과 정약용의 시대적 상황에 따른 입장과 관점의 차이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이해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또한 19세기 실학자를 가상할 때, 과연 노비제 폐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이러한 점은 많은 답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데, 노예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기초해 당시 조선의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노예해방과 같은 당위적 주장을 제시한 답안이 많았다. 그렇지만 이 답안은 상대적으로 노비제에 대한 두 실학자의 관점을 비교적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전체 논지의 전개 과정과 표현이 자연스럽게 논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